

## 전라남도 한옥보존마을 및 행복마을 한옥의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 Analysis on Plan types of Hanok in Hanok Conservation Village and Happy Village, Jeollanam-do

이창재\*  
Lee, Chang-Jae

최 일\*\*  
Choi, Il

김정규\*\*\*  
Kim, Jeong-Gyu

유창균\*\*\*  
Yoo, Chang-Geun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plan of Hanok which has been newly built at rural areas in Jeollanam-do province and is to present the direction in setting architectural plan of Hanok at rural area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d the types of Hanok based on the top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in house and main spaces including room, living room and kitchen. Five types of 105 Hanoks, type-I, type-II, type-III, type-IV and type-V were drawn on the based of the shape of main house and top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in rooms including room, living room and kitchen. Type-I had spatial composition of main rooms in a row and showed similar shape of main house with traditional private houses in Honam region, type-II showed placement of living room in center and main rooms beside it, type-III showed change of type-II and placed kitchen and annex behind living room and similar plan composition with type-III and secured the area of living room and rooms by enlarging the number of rooms, and type-V had the shape of main house with twisted form and placed living room in the center and each room at side or twisted part to ensure openness of living room.

Keywords : Hanok, Rural Housing, Happy Village, Plan Type

주요어 : 한옥, 농촌주거, 행복마을, 평면유형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는 환경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친환경적이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축에 대한 관심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전통주거인 한옥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옥은 우리의 고유한 전통주거를 가리키는 말로서 외국의 주거와 비교되는 용어로서 사용되어왔다. 한옥은 오랜 세월동안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삶에 맞게 여러 검증을 통해 완성해 놓은 정주공간이다. 따라서 그 안에서 우리민족의 동질성이 존재하고 유·무형의 다양한 전통문화 요소가 깃들여 있다.<sup>1)</sup>

최근에 들어서 전통양식의 현대화 경향으로 한옥 주거 계획 및 개선에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현대의 주거공간구성이 한옥의 내부공간구성요소들과 접목됨으로써

한옥은 공간구성 및 재료사용 등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 및 관광인프라 조성 등의 목적으로 지자체들의 한옥보급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한옥을 널리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표준보급도서들은 면적을 기본으로 하는 유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농촌주거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공간구성의 유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대주거에 맞지 않는 전통한옥의 요소들이 여과 없이 도입됨으로써 실생활에서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전라남도의 농촌에 건립되고 있는 한옥들의 평면특성 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옥을 현대에 맞는 주거로의 개발을 위해서는 설계, 단지, 구조, 재료 등의 여러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나 그 중에서도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전라남도 농촌지역에 새롭게 건립되고 있는 보급형 농촌한옥<sup>2)</sup>의 평면특성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보급형 농촌한옥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을 하고자 한다.

\*정회원(주저자), 목포대학교 외래교수, 건축학박사  
\*\*정회원(교신저자),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정회원,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2008년 한국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S2-2008-000-01471-1).

본 논문은 2010년도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고 이창재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2010).

1) 김지민(2006). 지속가능한 ‘한옥’ 평면형 개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3), 211.  
2) 2004년 이후 전라남도 농촌지역에 한옥지원 정책에 의해서 건립된 한옥을 ‘보급형 농촌한옥’으로 칭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현재 한옥보급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한옥 신축의 수가 많고 지역적으로 서울 및 전주와 달리 농촌지역 한옥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전라남도에서 2005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한옥지원정책에 의해 농촌지역에 건립된 한옥을 대상으로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조사·분석 대상지는 전남지역에 조성된 행복마을 및 한옥보존시범마을인 총 33개 마을로서 현장조사 및 평면도 열람이 어려운 사례는 샘플추출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총 13개 마을 105채의 한옥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된 마을은 <표 1>과 같다.

표 1. 전라남도 행복마을 조사대상 한옥 분포

구분	마을	건립 계획	추진현황	조사 대상
			완공	
1	나주 도래	8	8	7
2	고흥 명천	10	9	7
3	구례 수락	5	2	2
4	구례 상사	18	9	6
5	장흥 우산	18	15	10
6	해남 매정	20	13	10
7	영암 구림	32	21	17
8	함평 모평	20	5	4
9	함평 오두	18	4	2
10	무안 약실	19	17	16
11	무안 복룡촌	20	12	12
12	무안 석북	15	5	3
13	무안 학례	14	9	9
계		217	129	105

조사대상 한옥의 몸체형태 및 방, 거실, 주방 등 주요 실의 위상적 배치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평면특성을 분석하였다. 평면특성 분석의 항목은 실내 출입방식, 거실·주방의 공간구성방식, 실간 연계방식, 뒷마당 출입방식 등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II. 전라남도 보급형 농촌한옥의 추진현황 및 보급방향

1. 보급형 농촌한옥의 추진현황

전라남도의 한옥건립사업은 친환경적인 한옥을 21세기에 남도의 살림집으로 정착시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한옥 마을 팀을 특성화하여 체계적인 한옥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옥건립사업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를 2005년 12월 29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농어촌마을을 현거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정착하고 도시민들이 귀농하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행복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한옥건립 사업을 한옥보존 시범마을과 연계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한옥보존시범마을 및 행복마을을 총 33개 마을을 지정하여 524채의 한옥건립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는데 2009년 4월 기준으로 129채는 이미 완공된 상태에 있다. 나머지 추진 계획된 한옥들은 공사 중이거나 심의 중에 있는 상태이다. 완공된 한옥들의 개체수로 현황을 파악하며 영암 구림마을, 해남 매정마을, 구례 오미마을, 구례 상사마을, 무안 복룡촌마을 등에서 활발히 한옥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전라남도 한옥표준설계도서 분석

전라남도의 한옥표준설계도서<sup>3)</sup>의 몸체형태는 ‘ㄱ’, ‘ㄷ’형으로 2가지 형태를 기본형으로 하였고, 지붕형태는 팔작집이며 구조는 민도리 양식을 채택하였다. 기둥간격은 현대생활패턴을 반영하여 기존의 전통한옥보다 300~600mm가 넓은 2,700~3,300mm 정도로 하였고 뒷마루는 한옥의 실내 공간 활용성을 고려하여 2칸 정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전통한옥에는 없는 거실을 중심에 위치시켜 주거의 중심공간의 역할을 하게 하였고, 현관을 정면 또는 측면에 설치하여 효율성 및 편리성을 추구하였으며, 욕실, 다용도실, 보일러실 등의 부속실은 본채 후면의 처마 밑 공간을 이용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sup>4)</sup> 그리고 원활한 시공을 위해서 표준시방서 및 상세도를 부록에 첨부하였다. 방한효과를 고려하여 방한 완충대 및 단열벽, 이중창호, 황토벽돌, 온돌(전통구들)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도면상에 명시하였다.

한옥표준설계도서의 유형별 한옥을 규모기준으로 구분지어 보면 크게 ‘일반형’, ‘3세대형’, ‘복층형’으로 구분되어진다. 일반형은 64.4~109.6㎡의 작은 규모의 한옥으로 각각의 규모와 특징 구조에 따라 A-1형에서부터 C-2형까지 구분되어 지며 3세대형은 140~155.7㎡의 중간 규모의 한옥으로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규모와 특징, 구조에 따라 A형, B형, C형, D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복층형은 2층 구조로 연면적 136.1~236.5㎡의 규모로 A형, B형, C형, D형으로 나누었다.

전라남도 한옥표준설계도서는 규모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평면공간구성 및 농촌지역의 생활방식에 따른 평면 유형체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III. 평면형태의 유형화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할지라도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어떠한 관점에서 또는 어떠한 언어의 레벨로서 기준을 설정하는가가 유형화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sup>5)</sup> 본

3)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한옥시공매뉴얼 표준설계도서’를 약식 표현으로 ‘한옥표준설계도서’로 표기한다.

4) 김지민(2006). 지속 가능한 ‘한옥’ 평면형 개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2(3), 214.

연구에서의 유형분류는 전라남도 농촌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보급형 한옥 중 주거 및 민박겸용 한옥으로 한정하여 몸채형태 및 방, 거실, 주방 등의 주요 실들의 위상적 특성을 기준으로 평면유형을 유형-I, 유형-II, 유형-III, 유형-IV, 유형-V 등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유형들의 비율을 보면 유형-II가 38.1%의 비율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유형-V가 27.6%, 유형-I이 21.0%, 유형-III이 7.6%, 유형-IV가 5.7%의 비율 순으로 나타나 전라남도 행복마을 한옥의 유형은 거실을 중앙에 두고 양 옆으로 실들을 배치하는 형식인 유형-II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ㄱ’자형 몸채형태인 유형-V와 호남의 전통적인 민가형식인 유형-I도 분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평면 유형-I

유형-I의 평면구성은 거실 및 방이 주거 중앙에 위치하고, 주방 및 방들이 일렬로 구성되어 전통적인 호남지역의 민가형식과 유사한 몸채형태의 특성을 보인다. 일렬형 실 배치의 특징상 뒷마루 설치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전퇴부분에 뒷마루를 설치하여 실내출입의 역할을 하고 주방은 분리된 실로 배치한다. 처마 밑 공간으로 욕실 및 다용도실 등을 배치한 사례도 조사된다. 방의 수는 2개부터 5개까지 다양하게 분포되고, 뒷마루의 기능이 실내출입 기능 및 실간 연계기능을 갖는 공간으로의 특성이 나타나며 부재들의 대형화에 따라서 보폭이 커지면서 실들의 깊이가 커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부속실들은 거실 및 방의 후면으로 배치된다. 민박을 고려한 곳에서는 방마다 전용욕실을 설치하여 편리성을 추구하였다.

유형-I에서 방의 수를 늘리기 위해 측면에 꺾임형태로 방을 배치하는 변형된 사례들도 나타나는데 실들의 일렬형 배치는 유형-I과는 동일하고 단지 꺾인 부분에 방을 배치한다는 것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 2. 평면 유형-II

평면구성에서 거실은 주거 중앙에 위치하고 양옆으로 주요 실들이 배치된다. 거실은 각 실들의 연계공간으로 주거의 중심적 기능을 갖는다. 주방은 거실과 일체형, 분절형, 분리형으로 구성되며 실내출입방식은 거실공간의 확보를 위해 뒷마루 대신 현관을 설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뒷마루를 설치한 경우는 기밀성 확보를 위해서 별도로 미서기문 및 미닫이문을 설치한 사례들도 나타난다. 부출입구는 거실에서 바로 뒷마당으로 출입할 수 있게 설치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이 3개로 구성된 주거에서는 방은 거실의 좌우에 배치시키며 방을 상·하로 나란히 구성한다. 거실의 측면에 방을 하나만 배치하고 잉여공간에 주방이 배치된다.

전용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이 작아지며, 거실 후면에 증축형태로 다용도실 및 보일러실 등을 배치하였다. 다른 유형에 비해 주거의 규모가 작은 한옥들의 분포 비율이 높는데 부속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마 공간을 이용하여 증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 3. 평면 유형-III

유형-III의 평면구성에서 거실은 주거 중앙에 위치하고 양옆으로 주요 실들이 배치된다. 유형-II형에서 변화되어 거실의 후면으로 주방 및 욕실, 다용도실 등이 배치되는 형태로 구성된다. 거실면적이 협소해지며 통풍 및 환기에는 비효율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거실 후면에 다용도실, 욕실, 보일러실 등의 부속실들이 배치됨으로써 주방의 공간구성은 분절형태로 대부분 구성된다.

거실 공간 확보를 위해 뒷마루 설치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대부분의 실내출입방식은 현관으로 이루어진다.

뒷마당의 출입은 거실후면에 주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이 3개로 구성된 주거에서는 방은 거실의 좌우에 배치시키며 2개의 방은 상·하로 나란히 배치하였고, 방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욕실은 거실의 후면에 다용도실 등과 함께 배치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다용도실 및 보일러실은 거실 후면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다른 유형에 비해 설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다른 유형들에 비해 방의 수가 2개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거실후면에 부속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를 줄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 4. 평면 유형-IV

유형-IV의 평면구성에서의 거실은 주거 중앙에 두고 실들이 측면 및 후면으로 배치된다. 유형-III형과 유사한 평면구성형태를 보이는데 측면 칸수를 늘려서 거실 및 방들의 면적을 확보하면서 부속실들의 공간도 확보하였다. 다른 유형에 비해 다용도실 및 보일러실의 설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주방은 주방의 측면에 분절형태로 설치하였고 다용도실 등을 인접시켰다. 실내출입방식은 현관과 뒷마루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뒷마루 설치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는데 전체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뒷마루 설치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의 방수는 3개로 구성되어지고 전용욕실은 주방에 인접하여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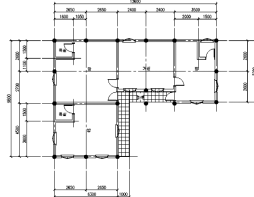
유형-IV의 변화형으로 거실을 측면에 배치하고 실들을 측면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형태도 나타나는데 이는 거실의 면적을 확장하고, 채광의 효율성을 높이고, 쪽마루를 이용하기 위해 거실의 위치를 조정하는 형태로 주방은 분절형으로 거실 위쪽으로 배치한다. 주방은 다용도실 및 뒷마당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겸한다.

### 5. 평면 유형-V

유형-V의 몸채형태는 ‘ㄱ’자형으로 거실은 중앙 및 직

5) 송인호(1998). 도시형 전통주거의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4(1), 64.

표 2. 유형별 기본형 및 변화형 평면도

구분	평면구성특성	기본형		변화형	
		평면도	대상한옥	평면도	대상한옥
유형-I	주방 및 방들이 일렬로 구성되어 전통적인 호남지역의 민가형식과 유사한 실배치 형태를 나타냄				
유형-II	거실은 주거 중앙에 위치하고 양옆으로 주요 실들이 배치됨				
유형-III	유형-II형에서 변용되어 거실의 후면으로 주방 및 욕실, 다용도실 등이 배치되는 형태로 구성				
유형-IV	유형-III형과 유사한 평면구성형태를 보이는데 측면 칸수를 늘려 거실 및 방들의 면적을 확보하면서 부속실들의 공간도 확보				
유형-V	몸체형태는 'ㄱ'자형으로 거실은 중앙 및 직교 부분에 위치하고 각 실들을 측면 및 꺾인 부분에 배치하여 개방성을 확보				

교부분에 위치하고 각 실들을 측면 및 꺾인 부분에 배치하여 개방성을 확보하고 각 실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주방은 후면에 배치된다.

뒷마루 설치비율이 낮고 현관 설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현관은 몸체의 꺾인 부분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현관과 뒷마루를 함께 설치한 곳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주방에 인접하여 화장실 및 다용도실을 설치할 경우 주방의 면적이 작아지는 특징이 있다. 방수는 대부분이 3개로 구성되어지고 꺾인 부분에 방을 배치하는 비율이 높고 일부 한옥에서는 누마루를 설치한 사례도 나타난다.

유형-III형처럼 거실의 후면으로 주방 및 부속실을 배치하는 변화형도 나타난다. 욕실, 다용도실 등의 설치로 협소해지는 거실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관을 측면으로 설치하고 거실 전면에는 쪽마루를 두었다. 다른 실들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위해 방수도 2개로 하였다.

#### IV. 유형별 평면특성 분석

##### 1. 분석항목

평면특성 분석의 항목은 실내 출입방식, 공적공간 구성방식, 실간 연계방식, 뒷마당 출입방식 등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평면특성 분석항목을 추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옥의 전통적인 실내 출입방식은 마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 건축되고 있는 한옥들은 편리성을 위하여 현관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마루와 현관의 구성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주거에서 대표적인 공적공간은 거실·주방의 공간이다. 한옥의 현대화 과정에서 도입된 거실 및 주방의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였는데 거실 및 주방공간의 특성은 주거생활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옥의 전통적인 실간 연계방식은 마루 및 마당을 이용한 방식이었다. 생활패턴의 변화 및 거실의 도입

등으로 실간 연계방식이 마루 및 복도, 거실, 마당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뒷마당 출입방식은 주부의 가사노동공간의 합리성 확보에 주요한 건축적요소로 작용하고 뒷마당의 이용 효율성을 결정 짓는 주요한 요소이다.

1) 실내 출입방식

현관은 전통한옥에는 존재하지 않던 공간으로 한옥의 현대화 과정에서 도입되어 뒷마루의 역할을 대체하는 공간으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현관은 뒷마루에 비해 실내의 기밀성 및 방한 등에는 유리하나 마당과의 연계에 불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뒷마루는 현관출입에 비해 마당 연계에 유리하나 기밀성에는 불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에 건립되고 있는 한옥들은 뒷마루 외부에 미서기문 및 미닫이문을 설치하여 기밀성을 확보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쪽마루는 기밀성에는 불리하며 마당 연계는 현관에 비해 높은 형태이다. 현관+뒷마루는 현관과 뒷마루의 중간적인 형태로 마당 연계에는 유리하며 기밀성은 중간정도의 특성을 갖고 있다. 직접출입 방식은 기밀성 및 마당 연계에도 불리하다.

표 3. 실내 출입방식에 따른 건축특성

구분	기밀성	마당연계
현관	●	■
뒷마루	■	●
쪽마루	■	▲
현관+뒷마루	▲	▲
직접	■	■

●:우수함, ▲:중간, ■:불리함

현관은 설치위치에 따라서 삼입형, 흘형, 돌출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삼입형은 거실의 면적을 협소하게 하고 채광에 불리한 특성을 갖고 있다. 흘형은 거실면적을 유지하면서 채광에 유리하며, 돌출형은 거실면적을 유지하나 채광에는 불리한 공간구성 특성이 나타난다.

표 4. 현관방식에 따른 건축특성

구분	거실면적유지	자연채광
흘형	▲	●
삼입형	■	■
돌출형	●	■

●:우수함, ▲:중간, ■:불리함

2) 거실 · 주방 공간구성방식

주거의 대표적인 공적공간인 거실과 주방의 공간구성은 일체형과 분절형, 분리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체형은 개방성에는 유리하나 독립성과 환기 등에 불리하며, 분리형은 독립성 및 환기 등에는 유리하며 개방성에는 불리하다. 분절형은 일체형과 분리형의 중간정도 특성을 갖고 있다.

표 5. 공적공간구성에 따른 건축특성

구분	개방성	독립성	환기
일체형	●	■	■
분절형	▲	▲	▲
분리형	■	●	●

●:우수함, ▲:중간, ■:불리함

3) 실간 연계방식

거실 중심형 평면에서는 거실이 실간 연계 기능을 하고 전통적인 한옥의 일렬형 실배치에서는 마루 및 복도를 통해서 실간 연계가 이루어진다.

거실 중심형에서는 실들의 연계동선이 짧고 합리적이지만 프라이버시확보에 불리함이 있고, 마루 및 복도형에서는 연계동선은 불편하나 프라이버시 확보에 유리하다.

표 6. 실간 연계방식에 따른 건축특성

구분	동선의 합리성	프라이버시 확보
거실중심형	●	■
마루 및 복도형	■	●

●:우수함, ▲:중간, ■:불리함

4) 뒷마당 출입방식

뒷마당 출입방식은 농촌주거에서 주부의 가사노동공간의 합리성 확보에 주요한 건축적 요소로 작용한다.

일반 단독주거의 뒷마당 출입방식은 거실-뒷마당, 주방-뒷마당, 거실-다용도실-뒷마당, 주방-다용도실-뒷마당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부들의 가사노동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한다면 주방-다용도실이 가장 합리적 배치라고 할 수 있다.

표 7. 뒷마당 출입방식에 따른 건축특성

구분	서비스 동선	가사노동 공간연계
거실-뒷마당	▲	■
거실-다용도실-뒷마당	▲	▲
주방-뒷마당	●	▲
주방-다용도실-뒷마당	●	●
앞마당 우회	■	■

●:우수함, ▲:중간, ■:불리함

2. 평면유형별 평면특성 분석

1) 유형별 실내 출입방식 분석

한옥에서의 전통적인 실내 출입방식은 뒷마루, 쪽마루를 이용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 건립되고 있는 한옥에는 현관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형-I에서는 뒷마루, 현관, 현관+뒷마루, 직접출입 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마당 연계가 유리한 뒷마루 방식이 5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한옥의 전통적인 출입방식이 계승되고 있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건립되고 있는 한옥들은 방한, 방음, 외부면지 유입방지 등의 목적으로 뒷마루 외부에 미서기문

및 미닫이문을 설치하여 기밀성을 높이는 사례들도 나타나는데 뒷마루가 설치된 한옥에서 약 25%정도의 비율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한옥표준설계도서의 일반형에서는 전체에 현관과 뒷마루를 동시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건축되어진 한옥에서는 현관과 뒷마루를 동시에 설치한 경우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유형별 실내 출입방식 분포

구분	서비스 동선	가사노동 공간연계
거실-뒷마당	▲	■
거실-다용도실-뒷마당	▲	▲
주방-뒷마당	●	▲
주방-다용도실-뒷마당	●	●
앞마당 우회	■	■

●:우수함, ▲:중간, ■:불리함



그림 1. 개방형 뒷마루 (해남 매정마을)



그림 2. 폐쇄형 뒷마루 (무안 북룡촌마을)



그림 3. 쪽마루 출입 (고흥 명천마을)



그림 4. 돌출형 현관 (해남 매정마을)

유형-II의 일부한옥에서는 뒷마루나 현관대신에 쪽마루를 설치한 사례도 나타나는데 쪽마루는 뒷마루에 비해서 시공성이 좋고 경제적이며 마당과의 연계도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체 유형에서 현관의 종류는 채광에 불리한 삽입형이 56.2%로 가장 높게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실면적을 유지하면서 채광에 유리한 홀형은 37.0%의 비율을 나타냈는데 격인 부분에 현관설치 비율이 높은 유형-V에서 홀형 현관의 설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관을 몸체에서 돌출시킨 사례도 분석되었다.

2) 유형별 공적공간 구성방식 분석

유형별에 따른 주거의 대표적 공적공간인 거실과 주방의 공간구성 분포비율은 <표 9>와 같다. 거실과 주방의 공간구성은 크게 일체형과 분절형, 분리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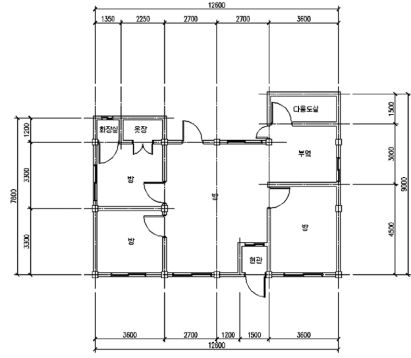


그림 5. 삽입형 현관 평면도(무안 약실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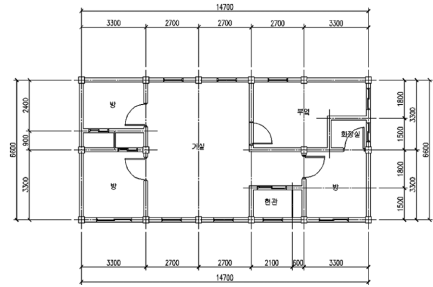


그림 6. 홀형 현관 평면도(무안 약실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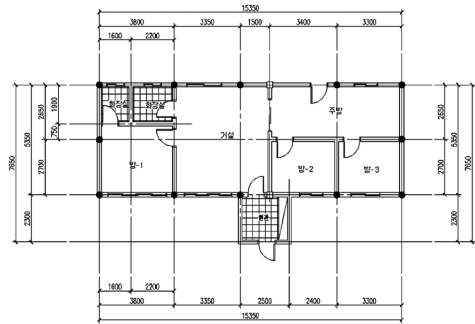


그림 7. 돌출형 현관 평면도(해남 매정마을)

표 9. 평면유형에 따른 거실 · 주방 공간구성방식 분포

구분	빈도	거실 · 주방 공간구성			전체
		일체	분절	분리	
유형-I	빈도	7	4	11	22
	유형 중 %	31.8%	18.2%	50.0%	100.0%
유형-II	빈도	12	19	9	40
	유형 중 %	30.0%	47.5%	22.5%	100.0%
유형-III	빈도	1	6	1	8
	유형 중 %	12.5%	75.0%	12.5%	100.0%
유형-IV	빈도	1	5	0	6
	유형 중 %	16.7%	83.3%	0.0%	100.0%
유형-V	빈도	1	22	6	29
	유형 중 %	3.4%	75.9%	20.7%	100.0%
전체	빈도	22	56	27	105
	유형 중 %	21.0%	53.3%	25.7%	100.0%

유형-I은 거실 · 주방의 공간 구성은 일렬형 실배치의 특성상 분리형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거실과 겸용인 일체형이 31.8%, 분절형이 18.2%의 순으로 조사되

었다. 절반이상인 완전한 실로 주방을 분리하여 주방을 배치하였다. 일렬 실배치는 주방을 독립된 실로 설치할 경우 거실에서 다른 실로의 동선연계에서 주방을 통과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 할 수 있어 주방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특성이 나타난다. 유형-II는 공적 공간구성은 분절형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일체형이 30.0%, 분리형이 22.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체적으로 주방을 거실에서 실로는 구획하지 않고 분절형태로 방의 후면에 배치하고 주방과 인접하여 다용도실 등을 설치한다. 다용도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방의 면적이 작아지며, 주방 전면에 설치된 방의 면적에 따라서 주방의 규모도 결정되는 상관관계를 갖는다. 유형-III은 거실·주방 공간구성은 분절형, 일체형, 분리형을 나타냈으며, 분절형이 7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일체형, 분리형이 각각 12.5%의 비율을 보였다. 거실 후면에 다용도실, 욕실, 보일러실 등을 배치함으로써 주방이 분절되어 구성된다. 유형-IV에서의 거실 및 주방 공적공간 구성은 분절형과 일체형으로 나타났으며, 분절형이 83.3%로 일반화 되어있었고, 일체형이 16.7%의 비율을 보였다. 거실 후면에 부속실들을 배치함으로써 주방을 완전한 실로는 분화되지 못하였고 분절된 형태로 주방을 배치하였다. 유형-V에서는 분절형, 분리형, 일체형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절형이 7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분리형이 20.7%, 일체형이 3.4%로 나타났다. 전체유형들의 거실·주방의 공적 공간구성은 대부분이 분절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유형-I에서는 공간배치 특성상 분리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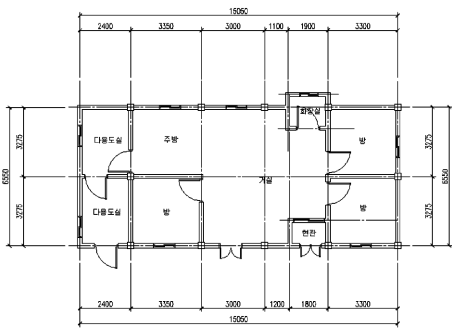


그림 8. 분절형(무안 약실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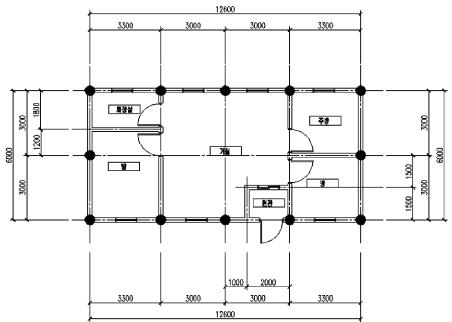


그림 9. 분리형(구례 상사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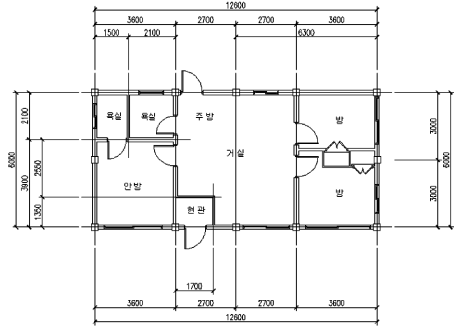


그림 10. 일체형(고흥 명천마을)

3) 유형별 실간 연계방식 분석

실간 연계는 거실과 뒷마루 및 복도로 나눌 수 있으며, 공간구조상 거실 중심형에서는 거실이 실간 연계기능을 하며, 일렬형 실배치에서는 뒷마루 및 복도가 실간 연계기능을 한다. 일렬형 실배치 비율이 높은 유형-I에서 뒷마루 및 복도형이 5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뒷마루 및 복도, 거실 등을 이용하지 않고 마당에서 연계되는 사례도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유형에서는 동선단축 및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 거실이 실들의 연계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민박 사용비율이 높은 유형-I에서는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서 뒷마루나 복도를 활용하여 실들을 연계하는 방식들이 나타난다.

표 10. 실간 연계 방식에 따른 유형별 분포

구분	실간 연계방식			전체	
	거실	뒷마루/복도	마당		
유형-I	빈도	8	13	1	22
	유형 중 %	36.4%	59.1%	4.5%	100.0%
유형-II	빈도	40	0	0	40
	유형 중 %	100.0%	0.0%	0.0%	100.0%
유형-III	빈도	8	0	0	8
	유형 중 %	100.0%	0.0%	0.0%	100.0%
유형-IV	빈도	6	0	0	6
	유형 중 %	100.0%	0.0%	0.0%	100.0%
유형-V	빈도	29	0	0	29
	유형 중 %	100.0%	0.0%	0.0%	100.0%
전체	빈도	91	13	1	105
	유형 중 %	86.7%	12.4%	1.0%	100.0%

4) 유형별 뒷마당 이용방식 분석

전체유형의 뒷마당 출입방식은 거실 및 주방에서 마당으로 바로 출입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어 주부의 가사동선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동선 및 주부의 가사노동공간과의 연계에 가장 합리적인 주방-다용도실-뒷마당의 주부동선은 약 17%정도로 분석되었다. 특히, 일부 한옥에서는 부출입구가 설치되지 않아 앞마당을 우회하는 사례도 나타나는데 서비스동선 및 가사노동공간연계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농촌지역의 한옥 건립시 주부의 가사노동공간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계획이 한옥설계 초기단계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표 11. 뒷마당 이용방식에 따른 유형별 분포

구분	뒷마당 이용방식						전체	
	거실	주방	주방-다용도실	거실-다용도실	거실-기타	미설치		
유형-I	빈도	11	7	0	1	0	3	22
	유형 중 %	50.0%	31.8%	0.0%	4.5%	0.0%	13.6%	100.0%
유형-II	빈도	21	13	2	3	0	1	40
	유형 중 %	52.5%	32.5%	5.0%	7.5%	0.0%	2.5%	100.0%
유형-III	빈도	1	5	1	0	1	0	8
	유형 중 %	12.5%	62.5%	12.5%	0.0%	12.5%	0.0%	100.0%
유형-IV	빈도	0	1	3	1	0	1	6
	유형 중 %	0.0%	16.7%	50.0%	16.7%	0.0%	16.7%	100.0%
유형-V	빈도	9	8	12	0	0	0	29
	유형 중 %	31.0%	27.6%	41.4%	0.0%	0.0%	0.0%	100.0%
전체	빈도	42	34	18	5	1	5	105
	유형 중 %	40.0%	32.4%	17.1%	4.8%	1.0%	4.8%	100.0%

### V. 결 론

전남지방 농촌한옥의 평면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몸채형태 및 방, 거실, 주방 등의 주요 실들의 위상적 특성을 기준으로 평면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몸채형태 및 방, 거실, 주방 등의 주요 실들의 위상적 특성을 기준으로 유형-I, 유형-II, 유형-III, 유형-IV, 유형-V 등의 5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는데 거실을 중앙에 두고 양 옆으로 실들을 배치하는 형식의 유형-II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ㄱ’자형 몸채형태인 유형-V와 실들의 배치가 일렬형인 유형-I도 분포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유형들의 특성을 보면 유형-I은 주요 실들이 일렬로 공간구성 되어 전통적인 호남지역의 민가 형식과 유사한 몸채형태의 특성을 보이며, 유형-II는 거실이 주거 중앙에 위치하고 양옆으로 주요 실들을 배치한다. 유형-III은 유형-II형에서 변화되어 거실의 후면으로 주방 및 부속실을 배치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유형-IV는 유형-III형에서 변화하여 측면 칸수 1칸 정도를 늘려 주거의 깊이를 늘려서 다용도실 및 보일러실들의 공간을 확보하였다. 유형-V는 격입형의 몸채형태로 거실은 중앙 및 직교부분에 위치하고 각 실들을 측면 및 격입부분에 배치하여 개방성을 확보하고 각 실들을 연계하며, 주방은 분절형 또는 분리형으로 구획되어진다.

둘째, 전라남도의 한옥표준설계도서에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유형인 거실을 중앙에 두고 양옆으로 실들을 배치하는 유형-II가 설계방향의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전라남도 농촌지역의 한옥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한옥이 건립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거용 한옥 및 민박을 고려한 한옥은 유형-I이 적합한 평면으로 제안되며, 부지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곳에는 다용도실 및 보일러실 등이 수납공간이 많은 유형-III 및 유형-IV가 평면공간구성의 효율성에서 적합한 평면형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한옥의 전통적인 실내출입방식은 뒷마루, 쪽마루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으나 최근에 건립되고 있는 한옥

에는 현관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옥표준설계도서에는 뒷마루를 모든 유형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현관과 뒷마루를 동시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한옥에서 뒷마루 설치비율은 약 30%정도에 불과하였고 현관과 뒷마루를 동시에 설치한 비율도 약 7%로 조사되어 실제로 건축되어진 한옥에서는 뒷마루를 설치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방한, 방음, 기밀성에서 불리한 뒷마루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기능이 상대적으로 시공성이 우수하고 경제적이면서 뒷마루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쪽마루에 대한 계획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 건립된 한옥의 거실·주방의 공적공간구성은 현대의 공동주거 형식과 유사하게 거실을 중앙에 배치시켜 그 주위의 공간을 양분화하며 주방을 부속형태로 거실의 측면에 배치시키는 형태가 일반화 되어 있었다.

실간 연계는 대부분의 유형에서 동선의 단축 및 주거의 편리성을 위해 거실이 실들의 연계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민박 사용비율이 높은 유형-I에서는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서 뒷마루를 이용하여 실들을 연계하는 방식들이 나타난다. 민박을 고려한 한옥에서는 유형-I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뒷마당 출입은 주부의 가사노동공간의 연계 및 효율성을 위해서 주방-다용도실-뒷마당의 출입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나 약 17%정도에 불과하였고 대부분 거실 및 주방을 이용하여 직접 뒷마당으로의 출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한옥에서는 부출입구가 설치되지 않아 주부들의 가사동선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주부의 가사동선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부출입은 주방에서 다용도실을 거쳐서 뒷마당으로 출입할 수 있는 주거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야외활동이 많은 농촌지역 특성상 화장실에 대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마당에서도 출입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화장실로 출입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및 거주자의 특성에 따른 건축적 대안이 새로이 정립되고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전통한옥의 조형미와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거주자들의 이용행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김지민 (2006). 지속가능한 ‘한옥’ 평면형 개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3), 211-218.
- 송인호 (1998). 도시형전통주거의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1), 62-68.
- 이창재 · 최일 (2010). 농촌한옥의 정주성 평가 및 한옥의 인식도 비교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2(2), 77-84.

접수일(2010. 4. 22)

수정일(2010. 8. 26)

게재확정일자(2010. 10. 13)